

금호산업(주) 타이어 사업부

금호타이어, 세계 최초 26, 28인치 SUV용 타이어 개발

금호타이어는 최근 세계 최초로 기존제품보다 휠직경이 2인치이상 늘어난 SUV (Sports Utility Vehicles) 및 스포츠 트럭 (SPORTS TRUCK)용 초고성능 타이어 인26, 28인치 「엑스타 STX」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26, 28인치 '엑스타STX'는 고속주행시 탁월한 그림력(도로를 움켜쥐는 힘), 내구성, 제동력을 발휘하며 특히, 26인치 엑스타 STX는 내년 3월부터 양산하여 미주 지역 및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 제품은 현재 유럽 수출에 필요한 승인 (ECE-No.)을 이미 획득한 상태이며 미국에서 도로조건이 가장 가혹한 데스 밸리(DEATH VALLEY)의 타이어 실차 내구성시험(ATE)을 통과하여 제품의 기술력 및 안전성을 인증 받았다.

고부가가치 제품인 이 타이어의 판매가격은 일반 SUV타이어 보다 약 20배 정도 높은 한본(개)당 100만원이상이며 4개 구입시 웬만한 소형차 가격과 맞먹어 차량 성능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휠과 타이어의 사이즈를 크게 하려는(인치업:INCH-UP) 일부 메니아층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SUV용 타이어로 24인치 타이어가 휠 직경이 가장 컸으며 이번에 금호에서 개발한 타이어는 기존 제품보다 2~4인치이상 휠 직경이 늘어난 것으로 포드 익스피디션(FORD EXPEDITION), GM 유콘(GMC YUKON), 링컨 내비게이터(LINCOLN NAVIGATOR) 등에 장착할 수 있으며 국내 차종은 튜닝을 거쳐야 사용 가능하다.

한편, 매년 30% 정도씩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성능 인치업 타이어 시장에서 금호타이어는 현재 고성능SUV 및 스포츠트럭 타이어의 본고장인 미주, 유럽 시장 등에 22/23/24인치 SUV용 초고성능 타이어를 수출 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한26/28인치의 경우에도 초고성능(UHP) 타이어 시장을 주도할 고수의 수출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남경타이어, 2005년 중국시장점유율 1위 목표

금호타이어의 중국해외공장인 금호남경타이어가 2005년 중국 승용차용타이어 시장점유율 1위를 목표로 올해부터 중국 북방(황하 이북)지역 타이어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금호남경타이어는 현재 중국 남방(황하 이남)지역 래디얼(승용차용) 타이어 시장에서 해외메이저업체들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20%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북방시장 점유율 15%를 달성, 중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호남경타이어는 지난 1월 10일, 중국 북경 인민대회장에서 250여개의 우수대리점을 초청, '전국대리점 전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북방시장의 성공적 진입을 위하여 판매망 정비에 나서고 있다. 금호남경타이어는 북방시장의 원활한 물량공급을 위해 북방 주요거점에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대리점망 확충,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점 점포 현대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인 채용을 늘리고 지점망을 정비하여 영업조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방송인 CCTV 광고 및 각종 옥외광고를 설치 등을 활용, 금호타이어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신장을 위한 공격적인 프로모션 정책도 펴 나갈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대학생 광고공모전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에는 작년보다 무려 2배 이상이 증가한 1천763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대학생 광고 공모전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였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11월 14일 본사 강당에서 제 4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금호타이어 대학생 광고 공모전은 엑스타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컨셉 아래 학생다운 참신함과 창의성을 찾는 데 역점을 두는 동시에, 엑스타의 2차 광고 컨셉에 활용될 신선한 크리에이티브를 찾아 이를 실제 광고제작에 반영함으로써 산학연계의 새로운 광고 장르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금호타이어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이 실제 광고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꿈을 가

지게 된다. 이미 공모전 수상작인 '턴테이 불'편이 세렉스의 TV-CM으로, '우주'편이 슐루스 컴포트의 TV-CM으로 완성된 바 있다.그동안 금호타이어 대학생 광고 공모전은 응모부문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오며 공모전을 발전시키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올해 누구나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광고 대행사 비튼컴의 후원으로 '카피상'과 현재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인터넷과 매우 친숙한 환경이라는 것을 고려해 '인터넷 배너' 부문을 신설했다.

총 1천763편의 공모작 중 1, 2차의 세밀한 심사를 통해 본선에서 TV-CM 17점, 인쇄 32점, 카피 18점, 인터넷배너 15점이 열린 경합을 벌였으며, 영예의 대상은 '엑스타 경매'편이 돌아갔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12월 5일에서 8일까지 삼성동 코엑스몰 바다길에서 에드타임즈 협찬으로 4일간 수상작을 비롯한 주요 작품을 전시해 관람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대상은 <엑스타 경매>의 강윤희(한세대 광고홍보학과 미디어영상학부)씨가 차지했는데, 포물러 자동차를 경매에서 사들인 한 여성이 장착된 엑스타 타이어를 분리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장착하고 이제서야 만족하며 안정된 드라이브를 즐긴다는 내용으로 그녀가 원하는 것은 포물러차가 아니라 바로 엑스타 타이어였음을 강조했다. TV-CM 우수상에는 <황제를 위하여!>를 출품한 박태용/박수정(남서울대 시각정보디자인과)씨로, 옛로마 시대 콜로세움에서의 긴장감 넘치는 전자 경주를 통해 엑스타의 스피드와 안전성을 표현했다. 인터넷부문 우수상은 <정말로 빠른 녀석>의 이정근(수원대 디지털미디어 디자인과)씨에게 돌아갔는데, 마우스로 엑스타를 잡으려고 하면 제빠르게 옆으로 통통 튀어 가버리는 이미지를 재미있게 표현함으로써 ECSTA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느끼게 해보려는 의도로 제작했다. 인쇄부문 우수상은 <나비처럼 날아가 벌같이 쏜다>의 이준철(홍익대 시각정보디자인과)씨가 수상했는데, 나비와 벌을 소재로 엑스타의 안정감과 승차감을 부드러운 나비의 비상에, 속도감은 벌의 비상으로 표현하여 제품 속성을 나타냈다. 12월 5일에서 8일까지 코엑스몰 바다길에서는 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되어 대학생들의 신선한 광고감각을 선보였다. 대상을 차지한 강윤희씨와 그녀의 어머니가 신형인 사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넥센타이어(주)

이규상 부회장 “국제 통상 진흥인 대상”수상

한국국제 상학회가 수여하는 2002년 “국제통상 진흥인 대상” 수상자로 넥센의 이규상부회장이 선정되어 지난 11월 23일 부산대학교에서 2002년도 국제통상 진흥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규상 부회장의 수상배경은 넥센타이어를 대표적인 국제기업으로 육성하고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에서 최단기간에 법정관리를 종결하였으며, 2001년 1억 800만 달러, 2002년 1억2천900만 달러를 수출하는 등 외화획득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규상 부회장을 “2002년 국제 통상 진흥인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수상을 통해 넥센타이어의 투명 경영 원칙이 다시 한번 널리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상 소감을 통해 앞으로도 투명경영의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겠으며 인사에 대신했다.

대전지/물류센타 개소

넥센타이어의 전략 영업망 확장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27일 대전지점/물류센타가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달석 전무를 비롯하여 넥센메이트와 대전지역의 각 대리점 사장단등이 참석하여 대전지점/물류센타의 개소식을 축하해주었다.

대전지점/물류센타는 대지 2000평에 건물 1300평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00,000개의 타이어 적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번 대전지점/물류센타의 개소로 넥센타이어의 중부권 물류전진 기지가 될 것이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전역에 물류 배송이 원활해짐에 따라 대전지점의 2003년도 매출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넥센타이어의 이러한 물류센타의 개소는 전격적으로 확대되

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물류망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부산 출장소 개소

지난 12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부리 소재에 동부산 출장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의 개소식에는 이규상 부회장을 비롯한 각 지점의 대리점 백그 사장단 등 많은 축하객이 참석하여 새롭게 출발한 동부산 출장소의 개소식의 축하와 더불어 발전을 기원하였다. 부산 지역에서 서부산 출장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한 출장소이지만 앞으로 동부산권의 영업망 신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 한층 발전해 나갈 것을 자신있게 말하는 동부산 출장소의 앞으로의 선전이 기대된다.

2002년도 종무식

2002년도를 마감하는 종무식이 12월 30일 넥센타이어 교육실에서 열렸다. 종무식에는 넥센 이규상 부회장이 종무식사를 통해 전직원모두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모든 일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2003년에도 넥센의 더 큰 발전과 도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모두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김문홍, 김경수 사주의 정년퇴직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그들에게는 기념패와 행운의 열쇠가 증정되었다.

2003년도 시무식

2003년 1월 2일 넥센타이어 2003년도 시무식이 교육실에서 열렸다. 이날의 시무식에는 강병중 회장이 참석하여 사원 모두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다시 한번 밝아온 새해를 맞아 임직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3년간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2003년을 넥센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근로자 체력측정 실시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사의 도움으로 넥센타이어 임직원들의 체력측정이 지난 11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되었다. 최근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의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이번 체력측정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체력상태를 알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체력측정에는 총282명의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체력측정 결과를 통해 모두가 앞으로의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02년 하반기 넥센 장기·바둑대회 개최

넥센 기우회에서는 회원 약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2년 하반기 넥센 장기·바둑대회'를 11월 9일 사외의 북정기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기력에 따라 A, B그룹으로 편성하여 풀리그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다. 팽팽한 긴장속에서 진행된 대회였지만 시합후에는 침묵도모습 단합회를 따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우회에서는 모두가 내년의 대회를 기약하며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리 승진 시험 실시

11월 16일 대리 승진 시험이 교육실에서 실시되었다.

영어, 상식, 논문 총 3과목으로 실시된 이번 대리승진 시험에는 총 10명의 사원들이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날 시험은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실력을 발휘하는 자리여서인지 시험장은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지만 막상 시험이 끝난 후에는 모두가 활기찬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한국타이어(주)

한국타이어 6-시그마 공로패 수상

한국타이어가 6-시그마 추진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수상했다. 지난 10월 24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된 '6-시그마 2002 컨퍼런스'대회에 한국타이어를 포함한 5개사가 선정, 200여 명 이상의 추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공장 김의하 공장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비전-6 시그마'라는 주제로 개최된 '식스 시그마 2002 컨퍼런스' 이는 6-시그마 경영 혁신 철학과 전략, 우수 기업의 성공 사례 공유로 효과적인 6-시그마 활동을 촉진하고, 나아가 우리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국표준협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대회이다.

제2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지난 11월 '제2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한국타이어가 이름을 드높였다. 이 대회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재료팀의 '스마일B 분임조'와 기술팀의 '팔방미인 분임조'가 각각 대통령상(은상)을 수상하였고 LTR팀의 이평우 주임이 품질명장(대통령상)으로 선정되었고 TPM 사무국의 김수복 과장이 유공자(산업자원부장관상)로 선정되어 수상을 영예를 안았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매년 산업자원부 주최로 실시하는 행사로서 품질경영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 산업에 확산, 정착시키고 경영자와 관리자, 현장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 품질혁신에 대한 의지를 다질 뿐만 아니라 노사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대회로 국가적 행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회이다.

한국타이어 2002 서울 모터쇼 참가

타이어계의 자부심, 한국타이어가 'High Performance & Competition'이라는 주제로 한국타이어의 세계적인 기술력과 타이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2002 서울 모터쇼'에 참가했다. 이번 모터쇼에서는 고성능 UHP타이어인 벤투스 시리즈와 타이어 기술의 결정체 포물러 및 랠리 레이싱용 타이어, 새로운 개념의 컨셉 타이어를 전시했는데 특히 신개념의 미래형 타이어인 ADCI, 2, 3는 모터쇼를 찾은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타이어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컨셉 타이어는 기존 외관 중심 'looks good'의 디자인 강조에서 인간의 내면에 직접 와 닿는 감성 중심 'feels good'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또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규 자동차 경주 게임인 Need for speed 경주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 우승자들에게는 푸짐한 경품도 제공하여 한국타이어 전시관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더욱 즐겁게 했다. 한편,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쌍용차, 르노삼성차 등 국내 5개 완성차업체들은 다양한 컨셉카를 선보였고, 상당한 수출 상담 실적도 기록하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제3회 한국타이어 디자인 공모전

'동그라미, Safety and The Future'라는 주제로 열린 '2002 한국타이어 디자인 공모전'이 올해로 3회를 맞이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빛나는 아이디어와 놀라운 기량의 대학생 작품참여가 늘고 있는 이번 한국타이어 디자인 공모전에도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지난 12월 9일 공모전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식에 참석한 조충환 사장은 인사말에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의 꽃으로 대두되고 있는 디자인은 타이어에 있어서도 성능으로까지 귀결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업의

미래와 가치를 가능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 선점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한국타이어 디자인 공모전'은 젊은이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고 국내 타이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동경 오토살롱서 기술력 세계에 과시

한국타이어가 동양 최대의 튜닝 전시회인 동경 오토살롱에 고성능 UHP 타이어를 전시,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지난 1월10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동경 마쓰하리 국제 전시관에서 개최된 '2003년 동경 오토살롱'에 'Hankook Movement'라는 주제로 미래형 신개념 타이어 및 고성능 UHP 타이어 등 10여개 제품을 전시해 기술력을 보였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동경 오토살롱에 'Hankook Movement' 라는 주제로 자사의 세계적 기술력과 글로벌 빅 메이커로서의 역동성을 이미지로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타이어는 자사의 고성능 UHP 타이어인 벤투스 시리즈, 타이어 기술의 결정체 포물러 및 랠리 레이싱용 타이어, 그리고 미래 타이어의 방향을 제시하는 컨셉 타이어 등이다.

타이어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컨셉 타이어는 기존 외관 중심('looks good') 디자인의 강조에서 기능적인 측면이 인간의 내면에 직접 와 닿는 감성 중심 ('feels good')의 미래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한다. 한국타이어 전시관은 튜닝 시장의 세계 선두주자인 일본에 'Hankook'이라는 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있는 기회로 세계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한국타이어의 세계적인 기술력 및 타이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전시 역점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타이어 전시와 다양한 이벤트 실시 등으로 전시장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도할 것이다.